

과학보도의 오늘과 내일

專門人力 양성과 확보가 時急하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

과학보도의 현황

1958년 우리나라 일간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일보사에 科學部가 신설된 이래 3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중앙의 거의 모든 일간지와 방송사는 科學과 技術의 보도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게 되었고 각사마다 2~3명에서 5~6명의 과학기자를 확보하고 있다. 20여년전만 해도 중앙의 日刊報道媒體의 과학기자수는 1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6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또 일간지의 경우는 매체마다 한주일에 1~2회의 고정된 과학페이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과학보도의 양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科學報道가 다루어야 할 범위나 내용도 국가의 科學政策에서 첨단기술분야에 이르기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화와 專門化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저널리즘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부추기는 배경으로서 우선 국내의 科學情報를 생산하는 연구인력과 과학기술투자의 급격한 증가, 첨단기술지향의 산업구조개편, 과학기술이 물고 올 생활양식의 변모를 포함한 社會變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선진국의 과학기술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2000년까지 앞으로 12년간의 技術發展速度는 지난 12년간 보다 최소한 10배는 빨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새로 등장한 여러분야의 尖端技術들이 성숙단계를 맞으면서 기술체계와 국제경제와 통상에 구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급격한 변동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전환기를 맞는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접근책

과학보도는 다른 장르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目標中的 하나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정보량과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과학기술의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報道價値를 평가하는 일도 어렵거니와 이런 정보를 과학의 문외한인 일반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더우기 한정된 인원과 기동력 그리고 그밖의 여러 제한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科學報道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빠른 시일내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몇가지의 가능한 接近策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최근의 추세로 보아 전문기자 없이는 메시지전달이 어려운 시기가 곧 닥쳐올 것으로 전망되어 専門記者의 양성과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매체마다 되도록 많은 여려분야의 전문기자들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몇개부문을 망라하여 커버할 능력을 갖춘 3~4명의 전문기자는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컴퓨터기술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통신을 묶는 情報關聯部門은 한사람의 전문기자가 맡는다든가 生命工學을 비롯하여 의학, 농학을 전담하는 전문기자를 들 수 있다. 이들에게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국내외의 再訓練이나 연수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사 독자층의 수준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기자의 전문적인 자질이 더욱 요청될 것이다.

둘째, 이런 전문기자의 양성이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양성이다. 그림이나 삽화는 이제 과학기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되어 가고 있다. 그림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만인을 위한 메시지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올 봄 세계 과학계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실은 핵융합실험'에 관한 기사는 거의 모든 매체가 그림없이 보도했으나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곁들일 수 있었다면 독자의 理解를 한결 빠르게 誘導하고 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촉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과학기사의 독자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의 설명만 듣고도 곧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과학기사에 대한 스페이스배정에도 그림이나 일

이 글은 지난 6월 29일 과학기술진흥재단이 주최한 「과학언론진흥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註〉

러스트레이션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추상적인 학문인 과학은 그림을 곁들이면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科學大衆化에서 텔레비전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학의 문외한들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우선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지면 이번에는 신문의 科學記事나 과학란에 눈을 돌리게 되고 다시 과학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科學雜誌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새로운 분야인 과학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PD를 포함한 전문인력양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정규 뉴스프로에도 과학기술관련 보도의 양을 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관련 報章의 포괄적인 자료제공서비스체제는 科學報道向上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상 매체마다 제한된 인원으로 국내외의 과학기술활동이나 동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내의 과학기술활동만 해도 다양한 研究機關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기동력으로서의 취재능력이 벽에 부딪힌다. 그런데 해외 과학기술활동의 경우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통신사가 외신을 통해 제공하는 과학기술관련기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범위나 양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世界 科學技術記事의 유통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한 과학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예컨대 미국과학주간지 '사이언스(Science)'나 영국의 과학주간지 '네이처(Nature)'나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 등 과학전문 주간지다. 주간 '사이언스'의 경우 각분야를 망라한 50~60명의 전문기사와 汎世界的인 취재망을 갖고 있어 과학보도에 관한 신문이나 통신이 경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사실상 많아야 10명안팎의 과학기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대신문이나 大通信도 과학기사

의 취재원을 '사이언스'와 같은 과학 전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신문이나 통신들이 이밖에도 과학정보의 전문서비스매체인 '사이언스 뉴스'나 '사이언스 서비스'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취재의 대상을 선별하기도 한다. 大新聞이나 통신들도 이 과학전문지가 제공하는 情報나 資料에서 관심있는 기사거리를 선택하여 게재 또는 사용하거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취재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과학보도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매우 효율적인 정보유통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媒體가 없는 우리의 경우는 기존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기관을 보강하거나 독립된 이런 전문서비스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관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정보 자료를 선별적으로 가공하여 보도매체에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체가 필요로 하는 자료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에는 원칙적인 자료는 물론 여러가지 사진자료와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된다. 이로써 科學專門記者들은 이런저런 잡다한 일로 소비하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창의적인 취재구상이나 충실한 심층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다섯째, 과학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외에도 科學과 政治, 과학과 經濟, 과학과 社會, 과학과 文化, 과학과 宗教, 과학과 哲學, 과학과 藝術 등 과학과 다른 분야와 연관된 기사나 이야기개발에 눈을 돌린다면 과학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파급이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과학의 문외한도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사의 讀者層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科學文盲에 관한 문제

과학보도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자의 과학이해도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과학보도작성에서는 우선 수용자의 이런 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科學文盲者의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분야의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참고로 지난 1월말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美國科學振興協會에서의 한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지구가 태양주변을 1년에 한번씩 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미국인의 경우 반도 안되고 영국인은 3분의 1이었다는 것이다.

또 조사대상인 각각 2천명의 미국인과 영국인중 방사능에 오염된 우유는 끓이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각각 35%나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과학을 해득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인 6%에 불과하며 영국의 경우는 성인중 7%라고 보고 있다. 이 調査에서 성인들이 과학을 해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대학수준의 과학코스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 종전에는 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이 평생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좌우한다고 알려졌었다.

한편 先進國에서는 최근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解得力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科學教育問題의 재검토는 물론 매체를 통한 과학대중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국민의 科學文盲率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과학보도에 거는 기대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맺 는 말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은 국내외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학보도의 社會的役割이나 언론에서의 비중이 날로 커질 것으로 비추어 과학보도에서 양을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이며 획기적인 方策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